

2014 Autumn Vol.54

# 경북의사회회보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The 1st International  
Medical Expo in Korea

# 대한민국 의학 EXPO 2014

의료강국  
100세 KOREA

##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학술대회

일 정 | 2014. 11. 30(일), 호텔 인터볼고 대구

사전등록 | m.igbma.or.kr(mobile), www.igbma.or.kr(pc)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등록비 | 사전 20,000원, 현장 30,000원, 회비미납회원 100,000원(본회 및 대구회원) / 타지역회원 40,000원

입금계좌 | 대구은행 05-3941-7781 예금주 : 경상북도의사회

문의처 | 경상북도의사회 ☎ 053-941-7785

### Program

순위	시 간	연제 및 연자	
	08:30~09:00	등 록	
Session I (09:00~10:15)	Room A		Room B
	<b>진행</b> 경북의사회 학술이사 나득영 <b>만성병 핵심치료</b>		<b>진행</b> 경북의사회 학술이사 최영환 <b>알레르기질환 최신치료</b>
	<b>최장</b> 경북의사회 부회장 김재왕 대구시의사회 구군 의사회장협의회장 박창순		<b>최장</b> 대구시북구의사회장 김병석 동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최성민
1	09:00~09:20	<b>스타틴을 이용한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b> 대구파티마병원 내과 과장 이봉렬 <b>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은?</b> 경북대의전원 순환기내과 교수 채성철	<b>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증 치료</b> 동국의대 피부과 교수 서무규 <b>천식과 복합증후군</b> 영남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진현정
2	09:20~09:40	<b>당뇨 치료의 최신 지견</b> 계명대의 내분비내과 교수 조호찬	<b>소아천식 치료</b> 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혜리
3	09:40~10:00	질문, 토의	질문, 토의
4	10:00~10:15	질문, 토의	질문, 토의
	10:15~10:30	Coffee break	
Session II (10:30~11:45)	Room A		Room B
	<b>진행</b>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민복기 <b>외래에서 흔히 보는 질환의 최신 지견</b>		<b>진행</b>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민복기 <b>상처치유와 흉터관리</b>
	<b>최장</b>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유영구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광만		<b>최장</b> 경북의사회 부회장 장유석 대구시달성군의사회회장 추중엽
5	10:30~10:50	<b>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b> 계명대의 신경과 교수 이현아 <b>하지불안증후군의 최신 지견</b> 대구가톨릭의대 신경과 교수 김지언	<b>상처치유의 최신 지견</b> 경북대의전원 성형외과 교수 정호윤 <b>초기상처 치유와 흉터예방법</b> 계명대의 성형외과 교수 손대규
6	10:50~11:10	<b>노안 교정</b> 한빛안과의원 원장 박건욱	<b>임상에서 당뇨발 관리하기</b> 경북대의전원 피부과 교수 이석중
7	11:10~11:30	질문, 토의	질문, 토의
8	11:30~11:45	질문, 토의	질문, 토의
Session III (11:45~13:00)	개회식 및 런천 심포지엄(Room A)		
	<b>진행</b> 경북의사회 학술이사 나득영	<b>최장</b>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성민 경북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곤	
9	11:45~12:00	개 회	
		회장인사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정능수, 대구광역시의회 회장 김중서
		격려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10	12:00~12:20	<b>원격진료 저지 대책</b>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b>재테크의 숨겨진 비밀</b> 신한금융그룹PB기업센터 지점장 이재근	
11	12:20~13:00	Coffee break	
Session IV (13:20~15:30)	Room A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질환과 대책		
	<b>진행</b> 대구시의사회 학술이사 이형	<b>최장</b> 경북의사회 부회장 심재철,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이재태	
12	13:20~13:50	<b>에볼라바이러스와 의료인 감염</b>	경북대의전원 감염내과 교수 장현하
13	13:50~14:20	<b>통풍의 진단과 치료</b>	대구가톨릭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 최정운
14	14:20~14:50	<b>폐경기 여성의 행복을 위한 호르몬 치료</b>	동국의대 산부인과 교수 양희생
15	14:50~15:20	<b>의사들의 건강, 이대로 좋은가?</b>	이화대의 건진외과학과 교수 전해진
16	15:20~15:30	폐회 및 경품추첨	

## Contents



### 04 특별기고

신도청시대! 의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 장대진

### 05 포토뉴스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 08 회무소식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안동에서 화합과 우의 다져  
제3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봉사기금 23,870,000원 모금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경산 팔공산(갯바위)서 개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 그 길을 닦는데 본회가 앞장서기로 결의 다져

### 16 회무단신

### 18 공지사항

회원 및 가족을 위한 회원복지증진사업 전개  
실시간 접속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안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안내

### 22 회원동정

### 23 분회 및 병원소식·의료기관 개원현황

### 25 회원문예

수 필 \_ 죽마고우·전경홍  
여 행 기 \_ 산티아고 가는 길·이인태  
일본 규슈 자유여행·도황  
행사후기 \_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치고·김재왕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다녀와서·조수영

### 40 의학 및 건강칼럼

소아 섭취행동 장애의 임상적 접근·조승만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4년 11월 24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4. 4. 7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4. 10. 5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2014. 4. 27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2014. 10. 19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4. 5. 12	제52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4. 10. 19	제37회 전국지사테니스대회
2014. 5. 17~18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4. 11. 24	제54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4. 5	2014년도 회원정기신고	2014. 11. 30	대구·경북 권역 종합학술대회
2014. 6. 27~29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2014.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4. 7. 22~27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5. 1	제55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4. 9. 20~21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5. 2. 28	2014년도 전체이사회
2014. 9. 28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5. 3. 5	2014년도 회무감사
2014. 9. 30	제53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5. 3. 21	분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2015. 3. 31	회무인수인계

# 신도청시대! 의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장 대 진 의장  
경상북도의회

300만 도민들의 건강지킴이 이신 경상북도의사회 소식지「제54호 경북의사회보(가을호)」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인술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자리해오고 계시는 정능수 경상북도의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46년 설립한 경북의사회는 70여년의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선진국 반열에 진입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의료기술 발전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독도경비대 격려, 세월호희생자 성금모금,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활동 등 어려운 이웃과 고충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북의사회와의 친선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교두보를 마련해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선도적 리더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내 오지마을과 저소득층 가정 등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웅도 경북 백년대계의 명운이 걸린 신도청 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 경북의 내일을 여는 새 도읍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반듯이 세우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북인의 시대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10대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희망과 변화를 주도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도민에게 믿음과 공감을 주는 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회보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보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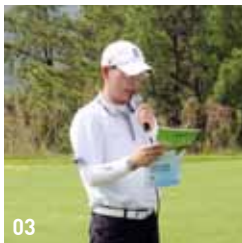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제3회 경상북도의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

지난 9월 28일(일), 엠스클럽 의성C.C.에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회원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01 개인전 우승 강래균 회원(영덕)  
02 챔피언 이우석(포항) · 심상준(안동) · 정봉수(안동) · 김영조(칠곡) 회원



03

04

03 황정환 준비위원장의 경기규칙설명  
04 시타중인 내반들  
05 봉사기금 전달 (좌부터 정봉수 회장, 김광만 의장, 김재왕 · 장유석 부회장, 김석곤 안동회장)



05



#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는 양지역 의료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안동 리첼호텔에서 화합과 친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01



02



01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전경

02 전북의사회 환영 영접

03 (좌부터) 정능수 본회회장 환영사, 김주형 전북회장 답사, 추무진 의협회장·변영우 의협이사·주낙영 경북행정부지사 장대진 경북의회의장·권영세 안동시장·김광림 국회의원의 축사





01



01 친선행사 축하공연 (안동시의사회 MD양상블, 대금연주)  
02 본회 신은식 고문과 전북 천희두 명예회장의 건배제의



02



03



04

03 제비원석볼 관람 04 봉정사 주지스님과 기념촬영 05 본회 김광만 의장, 전북 방인석 의장의 축사  
06 전북 김주형 회장으로 부터 안동시의사회에 감사패 전달 07 경북·전북의사회 기념품 교환 08 친선행사를 마치며 환송



05



06



07





본회(회장 정능수)와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주형)는 지난 9월 20일 (토)부터 21일(일), 1박2일간 본회주관으로 안동 리첼호텔에서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도리의사회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친선행사는 본회에서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이석균·정만진 고문, 임원과 시군의사회장 등 80여명이, 전북의사회서는 김주형 회장과 방인석 대의원회 의장, 장명규·천희두·양형식 명예회장 등 71명과 내빈으로 추무진 의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김광림 국회의원,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환영사 통해 “안동은 ‘동쪽의 전주’라 하는 것처럼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음식문화가 전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추로지향’을 일컫는 도시 또한 안동과 전주를 지칭하고 있다.”며, “조상들의 맛과 멋이 담긴 안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도 행사를 통해 마치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안동에서 느끼며, 문화유산의 가치 속에서 정적인 마음의 고양함을 배우고, 안동을 대표하는 탈춤이 가진 신명을 통해 동적인 발산을 체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 안동에서 화합과 우의 다져



김주형 전북의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오늘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손꼽아 기다리며, 안동에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회원 상호 간의 정을 나누고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였다.

이어 의협 추무진 회장과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김광림 국회의원,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 안동시 권영세 시장은 친선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동방문을 환영한다는 축사가 있었다.

이어 만찬과 더불어 경북 신은식 고문과 전북 천희두 명예회장의 건배로 화합을 다졌으며, 안동시의사회 MD양상블과 현악4중주, 대금연주 등의 공연을 관람한 후 야경이 아름다운 월영교 일원을 거닐며 산책의 시간을 가지며 가을 저녁의 정취를 느끼는 등 양 지역의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시’라 일컫는 안동의 각종 유적을 둘러보기 위해 전북의사회에서는 총 3대의 버스를 대절하여 1진버스는 정오에 도착하여 오천군자리와 도산서원, 퇴계

종택 등 안동 도산서원 권역을 관람하였으며, 이튿날에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유적지인 임청각, 범홍사지 7층 전탑, 응봉공원과 성주신앙의 본산인 제비원석불, 시대별 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봉정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 등을 돌아보며 친선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금년도 친선행사는 본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으며, 길풍식당에서 햇제사밥으로 점심식사 후 양도의사회 기념품 전달과 환송사, 금번 행사를 준비해준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뜻으로 전북의사회에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2014년도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경북·전북의사회 행사는 양지역 의료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 당시 전북의사회 김병주 회장과 경북의사회 오삼달 회장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상호 격년제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 제3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 봉사기금 23,870,000원 모금

본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함은 물론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일) 오후 1시, 엠스클럽 의성C.C에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원친선 골프대회는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고 의료봉사 기금마련을 위해 본회 정능수 회장과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을 비롯한 치과의사회 반응석 회장, 한의사회 이재덕 회장, 약사회 한형국 회장과 최종두·정만진 고문 등 회원 107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친선골프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본회 정능수 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황정환 준비위원장(부회장)은 KPGA룰과 엠스클럽 로컬룰에 따라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공정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며, 단체 기념촬영과 참석한 내빈들의 시타로 골프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참가한 회원들은 각 홀로 출발하여 샷간방식 스타트로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개인전과 권역별 상위 8명의 점수를 합계하여 선정하는 단체전, 상위 4명을 선발하는 챔피언 결정전으로 친선경기를 펼친 결과 개인전 우승에 강래균 회원(영덕)이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조문성 회원(경주), 3위는 전시현 회원(영천)이, 메달리스트는 이우석 회원(포항)이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단체전은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수 상위 8명의 성적을 합산한 결과 우승은 동부지구(포항, 영덕)이 차지하였으며, 챔피언은 이우석(포항)·심상준(안동)·정봉수(안동)·김영조(칠곡) 회원이 전체 선수 중에서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경기성적에 따른 시상이 있는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과 참가선물을 마련하여 참석한 회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친선경기와 함께 지난해와 같이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은 81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3,870,000원(연간)의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특히 이날 행사장 현장에서는 본회 정능수 회장 500만원,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이 200만원, 김재왕·장유석 부회장과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 이국희 회원이 100만원을, 황석순 부의장·도황 경주회장·장재혁 본회 기획이사·방종경 정책이사가 50만원,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대구의사회·경산시의사회에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또한 이날 골프대회 행사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 모금 결과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등 그간 본회에서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상에 대한 결과를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이 보고하였으며,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엠스클럽 의성C.C와 MOU를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를 통해 “2012년 제1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을 위한 회원 친선 골프대회의 첫발을 내딛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회째를 이어가고 있고, 두 번에 걸친 해외의료봉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회원여러분들의 성원과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손수 후원금을 기부해 주셨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하루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엠스클럽에서 좁은 진료실의 일상을 모두 잊어버리고 회원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어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과 보건단체를 대표해 약사회 한형국 회장의 축사, 치과의사회 반용석 회장과 한의사회 이재덕 회장의 건배사로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축하했다.



###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 경기 결과

#### ■ 개인전

- 우승 : 강래균 회원(영덕, 강구외과의원)
- 준우승 : 조문성 회원(경주, 현대병원)
- 3위 : 전시현 회원(영천, 동산정형외과의원)
- 메달리스트 : 이우석 회원(포항, 영동안과의원)
- 다바디상 : 이정일 회원(영주, 이정일산부인과의원)
- 다파상 : 심상준 회원(안동, 안동성소병원)
- 다보기상 : 강만수 회원(성주, 성주효양병원)
- 대파상 : 박정권 회원(칠곡, 박정권소아청소년과의원)
- 룡기상 : 한형원 회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 니어리스트 : 최종호 회원(포항, 최종호재활의학과의원)

- 잉교상 : 허진 회원(안동, 안동병원)
- 베스트 드레스상 : 정창근 회원(안동, 정창근이비인후과의원)
- 행운상 : 이국희 회원(의성, 동산연합의원)
- 특별상 : 김인정 회원(영천, 한국제통의원)
- 이글상 : 이우석 회원(포항, 영동안과의원)

#### ■ 권역별 단체전

1등(동부지구), 2등(북부지구), 3등(서부지구), 4위(남부지구)

#### ■ 챔피언 결정전

이우석(포항), 심상준(안동), 정봉수(안동), 김영조(칠곡) 회원

# 감 / 사 / 인 / 사 / 드 / 립 / 니 / 다

##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후원 -

### 일시납

2014. 9. 28 후원기금 납부자

#### ■ 500만원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 200만원

- 김광택(포항, 지곡그린의원)

#### ■ 100만원

- 김재왕(안동, 김재왕내과의원)
-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
- 이국희(의성, 동산연합의원)
- 장유석(경산, 장유석외과의원)

#### ■ 50만원

- 경상북도약사회(회장 한형국)
-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반응석)
-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
- 도환(경주,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
- 방종경(성주, 덕산의원)
- 장재혁(경산, 제일정형외과의원)
- 황석순(포항, 황석순내과의원)

#### ■ 30만원

-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종영)
- 김인정(영천, 한국제통의원)
-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중서)

#### ■ 13만원

- 황정현(상주, 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

#### ■ 12만원

- 김수현(포항, 김창수 수흥부외과의원)

#### ■ 10만원

- 강래균(영덕, 강구외과의원)
- 강만수(성주, 성주효요양병원)
- 강혁주(구미, 강내과의원)
- 구분환(영주, 구분환내과의원)
- 권준영(안동, 권내과의원)
- 김광인(안동, 안동제통의원)
- 김동욱(구미, 조은 i 의원)
- 김두표(안동, 안동병원)

- 김석곤(안동, 인선학문외과의원)
- 김양식(포항, 김양식내과의원)
- 김원기(상주, 김원기신경외과의원)
- 김유정(상주, 강남마취통증의학과의원)
- 김정현(상주, 강남비뇨기과의원)
- 김종영(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 김종호(청도, 김종호내과의원)
- 김하균(칠곡, 석적중앙의원)
- 노진우(영주, 참사랑외과의원)
- 박경대(경주, 박경대내과의원)
- 박용준(청도, 마디연합정형외과의원)
- 서익제(영주, 영주기독병원)
- 서창수(영덕, 서창수외과의원)
- 성승모(포항, 시티요양병원)
- 송재경(포항, 송재경산부인과의원)
- 신은식(포항, 신정형외과의원)
- 신주용(구미, 세명영상의학과의원)
- 안재현(포항, 안재현의원)
- 오영택(상주, 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
- 윤영목(안동, 안동기톨릭피부과의원)
- 이상식(김천, 이상식산부인과의원)
- 이영희(상주, 이영희내과의원)
- 이우세(포항, 대한정형외과의원)
- 이정일(영주, 이정일산부인과의원)
- 이태엽(영천, 영천산부인과의원)
- 이현철(포항, 이현철의원)
- 이형철(구미, 선산제일병원)
- 이홍우(경주, 서울내과의원)
- 임지훈(경주, 서울내과의원)
- 장상섭(포항, 포항선린병원)
- 전시현(영천, 동산정형외과의원)
- 전용성(칠곡, 영남외과의원)
- 전우성(구미, 우성비뇨기과의원)
- 정봉수(안동, 안동병원)

- 정선희(상주, 정소아청소년과의원)
- 정창근(안동, 정창근이비인후과의원)
- 조문성(경주, 현대병원)
- 최경수(안동, 최비뇨기과의원)
-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 최재성(영천, 최재성이비인후과의원)
- 최종두(안동, 최정형외과의원)
- 최중호(포항, 최중호재활의학과의원)
- 현만욱(성주, 초전중앙의원)
- 김대영(안동, 김대영비뇨기과의원)
- 이상현(청도, 현광연합의원)

### 자동이체

#### ■ 5구좌

- 고령군의사회(회장 백두현)

#### ■ 3구좌

- 김원기(상주, 김원기신경외과의원)
- 김찬중(칠곡,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이재흠(의성, 경북외과의원)

#### ■ 2구좌

- 김남일(포항, 속시원내과의원)
- 한형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 ■ 1구좌

- 문상용(안동, 제일외과의원)
- 박정권(칠곡, 박정권소아청소년과의원)
- 이국희(의성, 동산연합의원)
- 이우석(포항, 영동안과의원)
- 정만진(청송, 경북북부제3교도소부속의원)
- 정세주(김천, 정세주내과의원)
- 지성구(구미, 경북외과의원)
- 최계정(김천, 동산연합의원)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 경산 팔공산(갯바위)서 개최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2014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 대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9일(일) 오전 9시, 경산 팔공산의 갯바위와 능성재를 산행하는 코스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신은식·이석균·정만진 고문을 비롯하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인사와 등산로 안내,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산행이 진행되었다.

등반대회는 두개의 코스로 나누어 진행되어 1코스는 경산 갯바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선본사를 거쳐 갯바위를 돌아본 후 회귀하여 다시 선본사로 내려와 관음휴게소에 도착하는 코스로 1시간30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2코스는 1주차장 출발하여 능성재기점에서 하산하여 선본사를 거쳐 관음휴게소에 도착하는 코스로 2시간30분이 소요되었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오색단풍으로 물든 팔공산 산하를 내려다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들은 하산하여 인근 청기와집식당에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 순두부와 도토리묵, 파전과 막걸리로 화합을 도모하였다.

중식을 마친 후 뒤풀이 행사에서는 문상용 총무이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회장인사, 건배제의로 참석한 회원 및 가족들은

등반의 피로를 풀고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참석한 회원과 가족에게는 본회에서 등산모자를 선물로 증정하였다.

이날 등반대회는 포항과 경산에서 전세버스를, 개별회원은 승용차로 참석하는 한편, 도내 각지에서 회원과 가족들이 모여 상호 간 친목을 다지며 건강을 챙기는 등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팔공산 갯바위는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누구나 한가지의 소원은 이루게 해준다니 우리 회원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자.”며 “오늘 하루만큼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팔공산에서 진료실의 일상을 모두 잊어버리고 회원간, 가족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며 회원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

# 그 길을 닦는데 본회가 앞장서기로 결의 다져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회의 자발적이고도 확고한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 시도는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경상북도 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는 지난 11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인성 위원장, 본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석곤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집행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의료현안 설명에서 본회 김석곤 위원장은 원격의료의 현재 진행현황과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향후 의료계의 투쟁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의협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권리투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원의 피해가 없이 투쟁하는 기회를 가지고 원격의료의 반대 쟁취도 물론 중요하다며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격医료를 불참하자는 서명운동 전개가 최우선이라며 비대위가 꼭 막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경상북도 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문’을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하에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경상북도 의사회는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하고 중단 △영리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즉각 철회 △정부는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의사가 참된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 확충 △적정진료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안인 노인정액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라며 결의문을 발표하고 ‘졸속시범 원격의료 국민건강 마루타냐’며 구호제창을 끝으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의협 비대위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본회가 그 길을 닦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 결 의 문

###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경상북도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문

경상북도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의사회원의 자발적이고도 확고한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한 의사들의 충심을 무시한 채 의료를 차세대 먹거리로만 판단하여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뻗어 보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둘째,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런 본질에 충실할 때 대한민국의 의료는 경쟁력을 가진다. 편의성을 가장한 상업적 발상에서 시작된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시범사업이나 원격모니터링 시도는 오진과 의료사고, 모호한 책임소재로 그간 어렵사리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과 경쟁력을 송두리째 파괴하게 될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단지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 참여로 나온 시범사업 결과로 정부는 진실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가? 19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투자대비 과장 광고된 원격의료의 억지주장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밝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밀어붙이기식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넷째, 졸속 시범사업 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영리법인, 원격의료관련 장비업체와 대기업산하 건강관리회사에게 돈벌이의 토대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려 한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천인공노할 정부의 만행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하에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경상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하고 중단하라.

하나, 영리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의사가 침된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라.

하나, 적정진료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안인 노인정액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라.

2014년 11월 13일

경 상 북 도 의 사 회

## 제2회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개최



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지난 10월 5일(일) 오전 8시, 영천컨트리클럽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각 단체에서 1팀씩 선수조로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한 결과 치과의사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경상북도보건단체협의회 정능수 회장(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쟁할 때는 경쟁으로, 화합할 때는 화합으로 보답하는 것이 경상북도 보건단체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300만 경북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지역과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 또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였다.

이어 경상북도약사회 한형국 회장의 축사와 치과의사회 반응석 회장과 한의사회 이재덕 회장의 건배사가 있는 후 골프결과에 따른 우승팀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년 제3회 골프대회는 약사회 주최로 개최기로 하였다.

## 대구·경북 권역별 학술대회 준비회의 개최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 학술대회가 11월 30일(일), 인터볼고호텔(만촌동)에서 공동으로 개최기로 하고 이에 따른 대구·경북의사회 준비회의가

10월 1일(수)가 13일(월), 2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원활한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차 준비회의에서는 학술대회장은 A·B룸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등록비는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타지역회원 4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을 신청하고 연제 및 연자 섭외와 더불어 많은 후원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모집기로 하였다.

또한 제2차 준비회의에서는 각 session별 주제에 따른 연제 및 연자를 확정하고 미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행사진행 스케줄에 따라 철저히 준비기로 하였다.

## 캄보디아 아기 구순열 수술 무료 시행



본회에서 진행한 제2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7/22~27) 시 구순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의료낙후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수술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에 진료의뢰를 하여 캄보디아에서 온 6개월된 남자 아이의 구순열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아이의 부모를 만나 빠른 쾌유를 빌고 금일 봉을 전달하였으며, 아이의 수술비 전액은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은 경상북도에서 맡았다. 수술은 지난 10월 15일(수)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이번에 아이의 집도를 맡은 성형외과 정규용 교수는 국내 유명 성형외과의사로 뛰어난 수술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동석 병원장은 이번 캄보디아 아기의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해외의료관광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전국의사테니스대회 단체전 은배부 3위 입상

제37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 단체전이 지난 10월 19일(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목동테니스장에서 금배부와 은배부로



나뉘어 각 부 예선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열렸다.  
 이날 테니스대회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금배부 6명과 은배부 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금배부는 본선 8강에 진입하였으며, 은배부는 공동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본회 테니스동호회 김성환 총무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지만 작년보다 더 많은 선수가 참여했다는 것에 마음은 더 기쁘다.” 며,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경북의사회 테니스동호회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하였다.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협의체 회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2015~2018)의 일환으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해 지난 10월 29일(수) 오전 10시,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계획 보고와 제6기 비전(안) 심의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자문 등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으며, 본회 정능수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0월 28일(화) 오후 2시,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을 위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의약계, 사회복지단체, 대학교수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함께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처리 및 피해보상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 가입안내

-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진자(환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공제자(가입조합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험성”
- 타보험 가입조합원(전환가입)혜택
  - 공제료할인 : 무사고시
  - 소급담보일 인정 : 보험최초가입일
- 보상한도 : 3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 자기부담금(면책금) : 있음

#### 상호공제

- 공제조합에 가입할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도와주는 “상호부조”성격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 조합원 모집
- ↓ 보상의 재원마련
- ▶ 보상한도 : 최대 1천만원
  - ▶ 자기부담금(면책금) : 없음

#### 가입문의

##### 공제조합본부

-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관할
- [150-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9 샘탑빌딩 5층
- ☎ 02-1899-0059 / Fax 02-6234-1346, 02-792-1361

##### 지부사무소

- 대구[대구/경북]
-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82 대구광역시의회사회 내
- ☎ 053-941-7102, 070-4707-5123 / Fax 053-956-3273

**KMA**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회원 및 가족을 위한

# 회원복지증진사업 전개

본회는 의사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회원간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회원과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회에 등록된 회원 및 가족은 아래의 협약기관들을 이용시 효율적인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협약업체 및 주요내용

### ■ 엠스클럽의성C.C

- 본회 회원(동반자포함)은 엠스클럽 의성C.C의 18홀 이용시 정상가 그린피의 2만원 할인 (MOU체결 : 2014. 9. 28)
- 이용방법 : 모바일 홈페이지(m.igbma.or.kr) 접속→로그인→회원정보확인(사진)후 할인 제공. 회원정보 변경은 홈페이지나 시군의사회를 통해 변경

### ■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 본회 회원 및 가족 대상 제공(현재 ~ 2015. 3. 31,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의 하단 광고 참조)
- 이용방법 : 전화예약 (054) 740-0545, 예약시 본회 회원 및 가족임을 전달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 실시간 접속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안내



본회의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한 모바일 홈페이지가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으로 구축되어 빠른 회무소식 전달과 더불어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회무소식으로 의사사회뉴스와 온라인공문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등록 업무로 춘·추계 종합학술대회 등 행사 신청, 의사회비 및 각종 부과금 납부와 회원별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회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인터넷창에서 m.igbma.or.kr 입력하면 되고,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의 개발로 회원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며, 모바일 홈페이지가 회원과의 신속한 소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 : 스마트폰 인터넷창에서 m.igbma.or.kr 입력**

#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회원의 근무처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문을 수신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혼동이 없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대상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필히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는 사업장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혹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 등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방법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법으로 특별히 지정된 바가 없음을 따라 교육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을 진행하였음을 제시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rivacy.kr)'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보관
  - ※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rivacy.kr) 접속 후 상단 '온라인 교육' 메뉴 클릭
- 이외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통해 원내 교육이 가능하며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서명지 작성 등) 확보
  - ※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rivacy.kr) 접속 후 상단 '자료실 - 교육자료' 메뉴 클릭

## ::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횟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년 2회 이상을 필히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 정보통신망(예: 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 :: 기타 참고 사항

- 최근 수신된 공문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무료 교육 실시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후 후원사에 대한 상품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방법과 교육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원칙으로 이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교육 후 내부 근거자료만 보존하면 됨
- 다. 강사가 필요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 수강 가능

- 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음
  - 마.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추후 점검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 근거자료(일지양식, 게시방법, 참고자료 등)를 출력하여 필요한 서명 후 보관해야 함
- ※ 자료의 보관기간 : 3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호)

## :: 이런 경우가 "직장내 성희롱"

- **육체적인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인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소문)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인 행위**
  -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 성희롱이 발생되었을때 근로자는?

-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

##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주는 매년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성희롱 피해자 및 제3자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 ::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근로자는?

-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 회사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 성희롱을 당한 동료와 공동으로 대처한다.
-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 :: 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
-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등을 통하여 전원 교육실시**
  - 상시 10인 이상인 사업장

## ::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 지방노동청에 설치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하고,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 **법원에 소 제기**



※ 교육자료 및 서식은 본회 홈페이지 참조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안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 증가 하고 있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만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근 국회, 정부기관, 각종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과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 모니터링 대상 불법 의료광고

-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서 정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임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미심의 의료광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임의변경 의료광고)
-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 ::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가. 모니터링 사후관리 강화방안

-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과 시정조치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문을 통한 계도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있도록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 등 단계별로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적용함.

#### <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

누적 위반회수	사후관리 (1단계)	사후관리 (2단계)	사후관리 (3단계)
1회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2회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3회	행정고발		

나. 적용일자 : 2014년 1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다. 2014년 11월 1일 이전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 ▶ 2014년 11월 1일 이전 불법 의료광고 누적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이 적용하는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2014년 11월 1일부터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함

## ::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은 매주 2회 이상 현지 모니터링 실시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연회 현지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매체에 대해 1주 단위마다 모니터링 실시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 강화

##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하시고, 해당 의료광고를 계속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아닌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광고내용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전에 관련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의 제작 등을 대행사에게 위임하였다도 해당 의료광고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고주인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의료광고라고 의심이 되는 의료광고를 발견하시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 인지여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승인광고 빠른조회』에서 「심의필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현수 회원, 제8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취임**



신현수 제8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지난 11월 3일(월) 취임식을 가졌다. 경북의대를 졸업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을 지냈다. 또한 1999년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2011년 대구·경북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북주재활·경도요양병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전경홍 회원, 제4회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 심사위원장**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9월 20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학도수필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바쁜 수업 일정 속에서도 수필을 통해 상상력의 나래를 편 의학도들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경홍 의사수필가문경, 동산가정의학과 의원은 “수필 제목을 정하는데 서툴렀고 띄어쓰기나 문맥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제목에 걸맞은 글맛이 좀더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차기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더 좋은 작품을 써 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총평했다.

**김중호 회원, 포항 정가 발표회 개최**



(사)한국정가진흥회 포항지부 정심정가회(회장 김중호)가 마련한 '포항 정가 발표회'가 지난 9월 27일(토) 오후 5시,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전통 성악곡인 정가(正歌)의 맥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정가(正歌)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성악곡으로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를 통칭한다. 비교적 느리고 단조롭게 부르며 노래 형식이 잘 갖춰져 있고, 화평 정대한 기풍은 듣는 이의 감정을 안정시켜줘 옛 선인들이 지향하던 덕목을 모두 갖춘 예술성이 높은 노래로 평가받고 있다.

**이희경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교수, 구미경찰서장상 수상**

이희경 교수는 지난 10월 21일(화)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미경찰서장상을 수상했다. 이희경 교수는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를 이끌어 오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와 저소득가정아동 의료지원을 펼쳐왔으며, 지난 4월 유관 기관과의 MOU체결 후 경찰, 구급대원, 상담원, 교육복지사,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피해양상과 사례를 교육하고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도움을 주고 있다.

**김문철 에스포항병원장, 출산장려 유공 포항시장 표창**



김문철 에스포항병원장이 지난 11월 4일(화) 출산장려 유공부문 포항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문철 병원장은 출산친화 정책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에스포항병원 직원이 셋째 아이 출산 시 포상금지급을 비롯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했으며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장려해 복지 문화를 향상시켰다.

[ 회원별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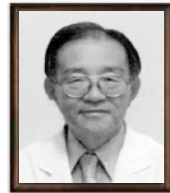
**제33, 34대 경상북도의회 오삼달 회장 별세**



본회 제33, 34대 회장을 역임한 오삼달 회장께서 지난 10월 13일(월), 향년 88세의 일기로 별세하셨다.故 오삼달 회장은 1926년 1월, 경북 경주시 탑리에서 출생하셨으며, 전.동강병원을 개원해오면서 1976년 포항시의사회장, 경북의사회 부회장, 1981년 경북야구협회장을 역임하였고, 1982년 경북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1985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제33대, 34대 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지역사회와 의료계의 굵직한 중요 직책을 맡아 의료현안 해결과 더불어 의료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다.



**장혜성 회원** (1958. 7. 3, 계명대 졸)  
포항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별세일 : 2014년 10월 18일(토)



**정영천 회원** (1938. 12. 2, 경북의대 졸)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 과장  
별세일 : 2014년 10월 19일(일)



**신현주 회원** (1949. 9. 22생, 경북의대 졸)  
경주, 파티마요양병원 병원장  
별세일 : 2014년 10월 25일(토)

## + 분회 및 병원소식

### 포항시의사회

#### 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지난 9월 17일(수), 포항시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은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대구지원에서 준비한 진료비 심사실적과 지표연동관리제의 대상항목, 진료비 지표현황 등에 대해 간략한 보고 등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회원친선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지난 8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의사회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이날 우승은 황석순 회원(황석순내과의원)이 차지하였다.

### 경주시의사회

#### 경주시 의약단체 친선골프대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도환)는 지난 10월 26일(일) 12시 30분부터 경주시 의약단체 친선골프대회를 의사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회원과 김미경 경주시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신라C.C.에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경주시 의약단체 간 상호협력 및 소통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날 각 단체장의 시타로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경주시의사회 김진용 회원(김진용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경주YMCA가 주최하고 경주시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가 무료진료에 참여하는 제15회 지구촌 축제 한마당 행사가 지난 10월 26일(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15번째 맞는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건단체에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경주시의사회 김중모 회원(하나연합의원, 지역이사)과 정유선 회원(용인내과의원, 환경이사)이 약 50여명의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사랑의 의술을 펼쳤다.

### 안동시의사회

#### 제3차 이사회 및 회원단합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9월 12일(금) 오후 7시, 안동 무릉유원지에서 제3차 이사회 및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논의와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구미시의사회

####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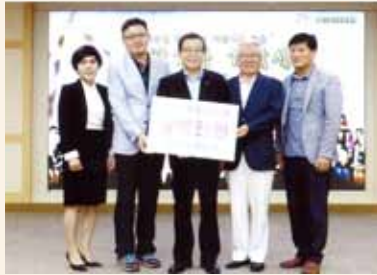


구미시의사회(회장 전우성)는 지난 10월 26일(일), 회원 및 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직지사와 황악산 일원에서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해발 1,111m인 황악산은 예로부터 학이 자주 찾아와 '황학산'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온산에 수림이 울창하고 산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계곡과 기암단풍의 절경을 감상하며 하산하여 김천직지사 전통음식인 산채정식을 먹으며 참석한 회원 및 가족과 함께 화합을 도모하였다.

#### (재)구미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일백만원 기탁

(재)구미시장학재단(이사장 남유진)은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 구미시청 3층 상환실에서 명품 교육도시 구미, 지역인재육성 조성을 위한 장학기금 기탁식을 거행하였

다. 이날 구미시의사회 전우성 회장과 신주용 기획이사가 참석하여 일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다.



### 제5회 구미시 아이사랑 음악회 개최

임산부의 날(10. 10)을 맞아 임산부 및 영유아를 배려·존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5회 아이사랑 음악회가 지난 10월 21일(화) 오후 2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구미시의사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임산부 및 가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및 시상, 아이사랑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되었다.

### 에스포항병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은 최근 별관 대강당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연구자가 알아야 할 법률과 윤리'와 '공용위원회 이용 방



### 소방의 날 도지사 표창 수상

지난 11월 10일(월) '제52주년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식'에서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영천소방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소방 행정발전에 이바지한 150여 명의 유공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표창하였으며, 그동안 에스포항병원은 화재로 인한 재난 사고 발생에 대비, 지속적인 소방 및 재난 방재 훈련을 해 온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였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걷기대회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센터장 곽경필)는 치매극복 주간을 맞아 지난 9월 13일(토) 경주 황성공원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전국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매극복 걷기대회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을 비롯해 광역치매센터가 설립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경상북도 도민 1천여 명과 함께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경북도를 만들기 위한 다짐의 장으로, 치매어르신 및 가족, 대학생 걷진사, 초·중·고등학생들 행진의 물결을 이뤘다.

### 안동성소병원

#### 개원 105주년 기념 가족사랑 걷기대회

안동성소병원(병원장 김종홍)은 지난 10월 18일(토) 개원 105주년을 기념해 '제회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민들의 가족 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회는 낙동강변 버들섬 앞 중앙무대를 출발해 태화동 어가골 반환점을 돌아오는 약 2.4km 코스로 진행됐다. 걷기대회 이외에도 바르게 걷기운동 소개, 행사장 진료, 가수 초청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었으며,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완주 증서는 물론 푸짐한 경품과 상품을 제공했다.

##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4년 9월 ~ 10월)

### 포항시

송정화 \_ 수성S여성의원  
(791-270) 포항시 북구 천마로 60  
T.253-7300 / F.253-7301

정진무 \_ 아산가정의학과의원  
(791-805) 포항시 북구 양화로 47-1  
T.278-0550 / F.278-0560

최동원 \_ 죽도연합의원  
(791-841)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4  
T.282-7502 / F.282-7503

황보성 \_ 좋은의사들안과양덕점의원  
(791-270) 포항시 북구 천마로 55 양덕빌딩2층  
T.256-0007 / F.256-0097

### 경주시

권장훈 \_ 안강아산내과의원  
(780-805)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65  
T.761-0675 / F.762-2303

### 경산시

손경식 \_ 경산대경영상의학과의원  
(712-804) 경산시 경안로 204 경도빌딩2층  
T.814-8365 / F.814-8368

### 구미시

배우리 \_ 9미의원  
(730-360) 구미시 인동30길 2  
T.474-7090 / F.474-7091

### 안동시

이한무 \_ 행복플러스가정의학과의원  
(760-310) 안동시 옥서1길 81 스카이빌딩 201호  
T.852-7275 / F.852-5275

# 죽마고우



전 경 흥 원장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자전거를 타려고 보니 타이어에 바람이 폭 빠져 있어 자전거포로 갔다. 학생들이 자전거에 기름을 치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체인을 조절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떠들썩했다. 학생들을 보니 동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동수가 젊은 날 역전파출소 차석으로 근무할 때 지방검찰청 3호 검사실에서 파출소장을 호출했는데 마침 소장이 외근중이라 차석인 동수가 대신 가게 되었다. 얼마 전 동기생인 영길이가 검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야 하는데 영길에 대한 열등감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날은 가는 길에 만나 보려고 정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갔다. 검찰청 현관 안내판에 “제3호 검사 이영길” 이라고 뚜렷하게 보여 마음이 야릇했다. 고향친구라며 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주치는 영길이의 눈빛은 불꽃이 튀는 듯 번쩍이며 별떡 일어나 “야! 이게 누구냐? 동수 아니냐? 이 웬수야!” 순간 동수는 고교 졸업식날 크게 싸웠고 결별을 선언했던 일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갔다. 세월이 지나 영길이는 검사가 되고 자신은 순경이라는 직위의 격차를 느껴 “제가 역전파출소 차석 장동수입니다.” 거수경례를 하니 “귀관은 근무 중에 사복으로 거수경례까지... 경찰 기강이 엉망이야, 그리고 그 소년 절도범은 경범죄인데 꼭 소년 교도소에 보내야 속이 시원하겠나? 법보다 사랑이 먼저인데” 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것은 제가 아니고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찬 서리가 내린 듯 썰렁한 분위기인데 서기가 들어왔고 차 배달 온 아가씨도 놀란 눈으로 서있었다. 영길이가 갑자기 “하!하!하! 오랜만에 만났는데 큰 소리쳐서 미안하다 동수야 앉아라 차 마시며 이야기하자 너를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 “친구야,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 어릴 때 한동네 살면서 잘 놀았는데 커가면서 많이 싸웠었지 통학할 때 내 자전거에 펑크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빼앗아 타고 달아났고, 고장 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시험 때만 되면 너의 노트를 강제로 가져갔지 참 많이 괴롭혔다 미안해” “동수야 그만해라 너와 나는 죽마고우야 과거사는 다 접어두자 그리고 우리 검찰과 경찰은 싸우지 말자” 영길이가 손을 쭉 내밀어 동수가 힘 있게 잡아 우정은 화해의 단막극으로 회복 되었다.

내가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때 학생들이 하나 둘 헤어져 갔다. 요사이 학교폭력이 심각한 이때에 저들 간에는 어떤 사연이 없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두 친구가 재미있게 노년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나의 죽마고우인 만수를 생각하며 야생화가 만발한 강변길을 신나게 달렸다.

# CAMINO DE SANTIAGO

## 산티아고 가는 길

올해는 우리부부가 결혼한 지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 초 누가 먼저 탈 것도 없이 산티아고 순례 길을 걸어 보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순례길 800km는 한 달 이상 걸리고, 콤포스텔라(순례자길 증명서)를 받는 데는 최소 100km 이상 걷거나 자전거로 200km 이상 타야하기에 일정을 결혼기념일인 10월 3일부터 12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 집 사람은 여행 스케줄을 잡고 나는 3월 달부터 수요일 근무 후 오전에 있는 운제산을 대학 동기들(경북의대 56회)과 매주 야간 산행을 다니고, 틈나는 대로 집사람과 함께 집에서 영일대해수욕장까지 왕복 12km 걷기훈련으로 체력단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왕복 비행기 표와 걷기 출발지점(Sarria)까지 가는 기차 예약 표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곧 가는 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드디어 출발날인 10월 3일 새벽 0시 50분 KLM 여객기편에 올랐습니다. 모처럼의 해외여행에 그것도 10일이나 창살 없는 감옥을 탈출한다는 생각에 무지 기뻐지요. 하지만 흥분도 잠깐 활주로까지 갔던 비행기는 기체에 문제가 있다며 터미널로 다시 돌아가 한참의 점검 끝에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암스테르담공항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에 환승 할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헬레벌떡 뛰어가서야 겨우 탈수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험난한 여행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하니 로칼 타임으로 10월 3일 오전 9시 예약된 호텔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시티투어에 나가 솔 광장에서 시내 투어버스를 타고 마드리드 시내를 둘러보고 '요한형제들'이라는 식당에서 스페인 전통 빠에야를 주문했는데 너무 짜서 반 넘게 남겼습니다.

이 인 태 원장  
기계의원(포항)



(좌부터) 마드리드 스퀘 광장, 산 미구엘 야시장, 사리아역, 막달레나 알베르게 앞

해물만 건져먹고요. 다음의 여러 식당에서도 느꼈지만 스페인요리는 전반적으로 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마요르 광장을 겨우 찾아 기념촬영하고 옆에 있는 산 미구엘 야시장에서 하몽 올리브 열매 만두 같은 과자 등을 사서 홀 중앙의 테이블에 앉아 샹그리아, 맥주로 결혼기념일을 자축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서 온 사람들과 잠시 인사도 나누었죠(자기들끼리 우리부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기를 했다는군요).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open하는 매력이 있나봅니다. 이렇게 마드리드에서의 하룻밤은 아쉽게 지나고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차르마틴역까지 가서 정오에 국영철도를 타고 6시간을 달려 사리아역에 도착, 딸이 국내에서 미리예약 해준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막달레나 알베르게에 호두 줍는 할머니 자전거 타고 있는 친절한 두 소년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착해 프레덴시알(순례자여권)을 발급 받고 10여개의 2층 침대 중에 1층 마주 보는 자리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1인당 10유로 다른데 비해 비싼 편~ 순례자 여권은 중요한데 알베르게에 묵을 때 보여줘야 싼값에 잠자리를 구할 수 있고 여권에 하루에 2개 이상의 세요(도장)를 받아야 옹게 순례자 길을 걸었다고 인정합니다.

숙소에서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선술 집 같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2인분 16유로, 푸짐한 식사에 red & white 와인까지~ 마음이 흡족~ 시골일수록 물가가 싼 것 같습니다. 와인과 함께 사리아에서의 하루도 빨강게 저뭉니다. 다음날 아침 7시반에 숙소를 나왔는데 아직 바깥은 깜깜합니다. 후레쉬를 비추어 camino de santiago(산티아고 가는길)를 가리키는 노란화살표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침 8시 15분쯤 되자 주위가 눈에 환하게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우거진 나무 숲의 나무는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덩굴식물로 옷을 입고 나

무 터널을 만들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도토리야 밤송이가 길바닥에 지천으로 깔려있어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숲길이 끝나면 더 넓은 초원에 집 한 채,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 몇 마리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침 9시경 배가 슬슬 고파오는데, 털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소 외양간 같은 건물 앞에 통나무 탁자위에 사과, 바나나, 빵, 호두 그리고 커피를 담은 보온병을 올려놓고 지치고 허기진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빵 몇 조각, 바나나 2개, 호두 몇 개 돌려 깨서 먹고 커피 두 잔을 맛있게 먹고 5유로 지폐 한 장을 쫓더니 아줌마는 “gracias”를 연발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2시간 정도 걸어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물도 한 병사고 1단 자리 묵주도 기념으로 샀습니다. 묵주는 보통 우리가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가 칼 모양을 하고 있고 메달에 야고보 성인의 부조가 대신하고 있어요. 아마 참수당한 야고보 성인을 기념하는 묵주인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사과가 많이 떨어진 길을 지나 오후 한시쯤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곳도 양이 푸짐하네요. 메인 요리에 감자튀김을 많이 주고(다른 식당에서도 감자 칩을 많이 주는 것을 봐서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 듯) 와인도 넉넉하게 병 채로 줍니다. 술기운인지 화폭 같은 주위 풍경에 남진의 저 푸른 초원위에~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길을 걷습니다. 오후 3시경 미노강을 가로지르는 높은 다리를 건너 포르토마린 이라는 작고 예쁜 마을에 도착,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정표를 봐서 23km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어제 알베르게서 잠을 푹 자지 못해 힘들어 하기도하고 왼쪽 눈꺼풀이 좀 부어올라 힘들어 합니다. 얼른 2인용 침실로 숙소를 정하고 공동 화장실에서 샤워한 다음, 집사람은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나는 마을 탐방에 나섭니다. 마을은 성당을 중심으로



100km 남았다는 표지석  
미노강 위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성당 앞에 광장이 있고 우측에 마을 관공서 좌측에 상가 및 식당이 위치 해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답게 성당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당에 가서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기도하고 나서 세요(순례자 여권에 찍는 도장)도 받고 오는 길에 산 목주도 이웃집 할아버지 같이 인상 좋으신 신부님께 축성도 받았습니. 점심때 식사가 많아 슈퍼에서 사과, 포도, 바게트, 과일 잼, 올리브열매 통조림 등을 사서 일부를 저녁으로 먹고 다음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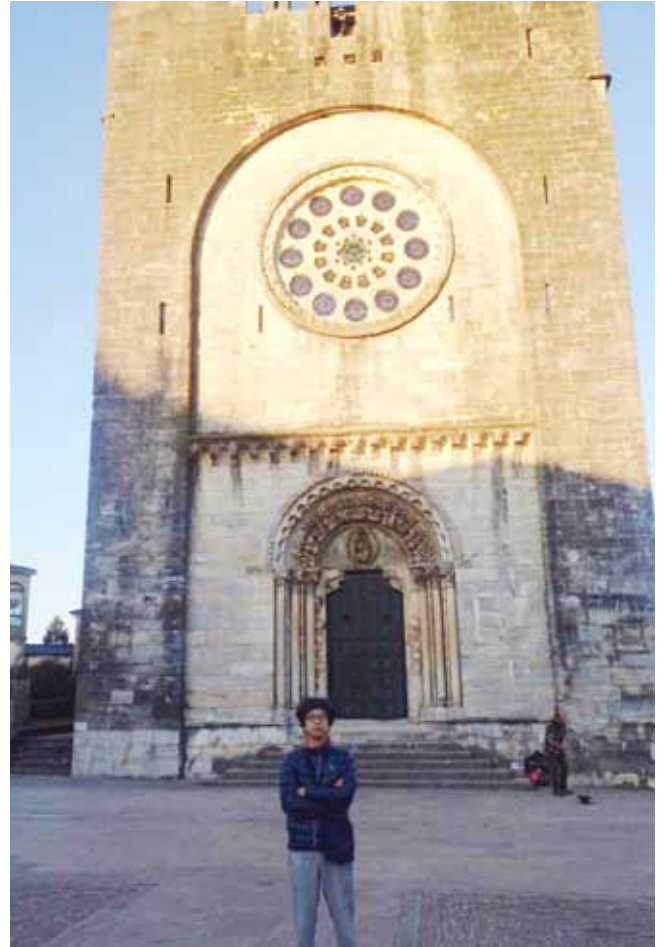
다음날은 6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해 7시쯤 출발~ 밖은 깜깜합니다. 전날 봐둔 이정표를 따라 걷는데 순례자 두 명이 길이 막혔다며 돌아옵니다. 후레쉬로 열심히 노란 화살표를 찾아보니 중간에 왼쪽 작은 길로 빠져야 되는데 지나친 것 같아요. 혼자 걷는 중년의 우리나라아줌마를 만나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벽길인데도 순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전 9시쯤 콘크리트 테이블과 벤치가 많이 만들어진 길가 휴식처에 앉아 전날 슈퍼마켓에서 산 사과와 바게트로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또 걷습니다. 숲길을 지나기도 하고 도로를 끼고 걷기도하고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전거로 순례자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갑니다. 비가 부슬 내리기 시작해서 비옷을 꺼내 입고 다시 행진~ 11시쯤 작은 마을 식당에서 cafe(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바깥 비안개 분위기 때

문인지, 진짜 원두가 좋아선지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잠시 휴식 후 길을 재촉~ 만나는 순례자들은 hola(올라, 안녕) 또는 buen camino(부엔 까미노, 좋은 길)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지친 순례자를 격려하면서 걷습니다. 이때만 해도 오늘 시작된 비가 여행 내내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비는 점점 심해져 산티아고에 입성하는 날 절정에 달함).

점심은 팔리스 데 레이라는 도시에서 집사람은 샌드위치 나는 정식(정식 1인분으로 둘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을 시켜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집사람은 눈꺼풀이 더 무거워 진다고 걱정합니다. 보는 데는 이상 없고 눈곱도 끼지 않는 것으로 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사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 후 빗줄기가 더 굵어져 알베르게도 있는 이 식당에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까 잠시 갈등하다 집사람이 더 가자고 하여 빗속을 뚫고 걸어갑니다. 오전과 달리 오후 길에는 비 때문인지 순례자들이 보이지를 안습니다. 우리 둘만의 길을 빗속에서 20km가까이 걷게 됩니다. 고독, 약간의 두려움, 풍광이 아름답다는 생각, 마을이 나타나면 반가움, 다시 걱정이 반복되면서 기계적인 발걸음으로 오후 7시경 멜리데(Melide)에 도착하게 됩니다. 장장 12시간, 총 40여km를 길에서 보냈습니다. 마을 입구의 호텔은 빈방이 없다고 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물어 물어 마을 안쪽 구석에 위치한 작은 호텔에 빈방을 구했습니다. 숙소는 점점 좋아져 화장실 딸린 2인실로, 헤어드라이어도 부탁해서 젖은 신발 양말도 말리고 젖



사과와 바게트로 아침식사  
포르토마린의 니콜라오성당



은 옷도 늘어놓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호텔식당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향합니다. 저녁식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수프가 큰 대접에 나오는데 맛도 좋고(치킨 수프보다 야채수프가 더 맛있었음), 쇠고기 갈비도 두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집사람이 시킨 생선구이도 푸짐하게 줍니다. 음료는 물이나 와인을 주문하는데 스페인은 와인 인심이 좋아서 거의 병 채로 줍니다. 2인분에 16유로 2만원 남짓 감동적인 가격입니다.

식사 후 내일 아침 식사용으로 근처 familia체인점에서 사과 껍을 을 준비한 후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전날 무리해서 걸어선지 아침 8시가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집사람의 눈은 어제의 무리한 일정 때문인지 더 심해져 누구한테 주먹으로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주섬주섬 배낭을 꾸리는데 집사람은 포르마린에서 산 맛있는 먹지 않고 있는 사과를 버리고 가져오고, 나는 “배고프면 다 맛있다. 먹는 거를 왜 버리냐”며 맞서다가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결국 “짐은 내가 지는데 왜 그리 간섭이냐 네 몸이나 잘 간수하지! 눈은 텅텅부어 가지고 남 걱정이나 시키고”했더니, 집사람 서럽다며 “난 가기 싫다. 네 혼자 가라”며 침대에 도로 누워 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 길래 호텔을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니 갈 데도 없고 한참 건다보니 집사람이 무릎 아픈 나를 생각해서 배낭무게를 덜어 줄 요량으로 그랬구나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맘이 들어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눈 상태가 심각하니 일단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하여 병원(medico)에 같이 갔습니다. 호세 안토니오라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어 나는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소개하고 집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니 친절하게 봐 줍니다. 잠시 후 여자의사 한분을 불러서 한 번 더 눈 상태를 같이 확인하더니 걱정 말라네요. 순례자들이 흔히 당하는 알베르케에서 침대벌레에 물린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 걱정 말라네요. 여기도 의약분업이라 항히스타민제와 연고를 처방해줍니다. 치료비는 나중에 집으로 청구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친절한 두 스페인 의사덕분에 걱정하던 집사람도 안심하고 나도 큰소리 친 것이 미안하여 약국을 찾아가는 길에 집사람과 자연스럽게 화해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잠은 호텔에서 자기로 작심하고, 늦었지만 호텔로 돌아와 기어이 맛있는 사과를 넣어 짐을 싸고 길을 나섭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 일본 큐슈 자유여행



도 황 원장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경주)

지난 여름 휴가를 가지 않았다. 대신 이번 가을에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일본 남큐슈를 열차와 렌터카로 여행하기로 마음먹고 몇 개월 전부터 틈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다. 자유여행이라서 하나하나 스스로 준비하고 챙겨야한다. 비행기 티켓과 레일패스를 구입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렌터카와 숙소, 맛집을 알아보고 예약했다. 경찰서에 가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환전을 하면 대충 준비는 끝난듯하다. 여행은 출발 전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즐겁지만 이번 여행은 특히 바쁜 와중에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 또 다른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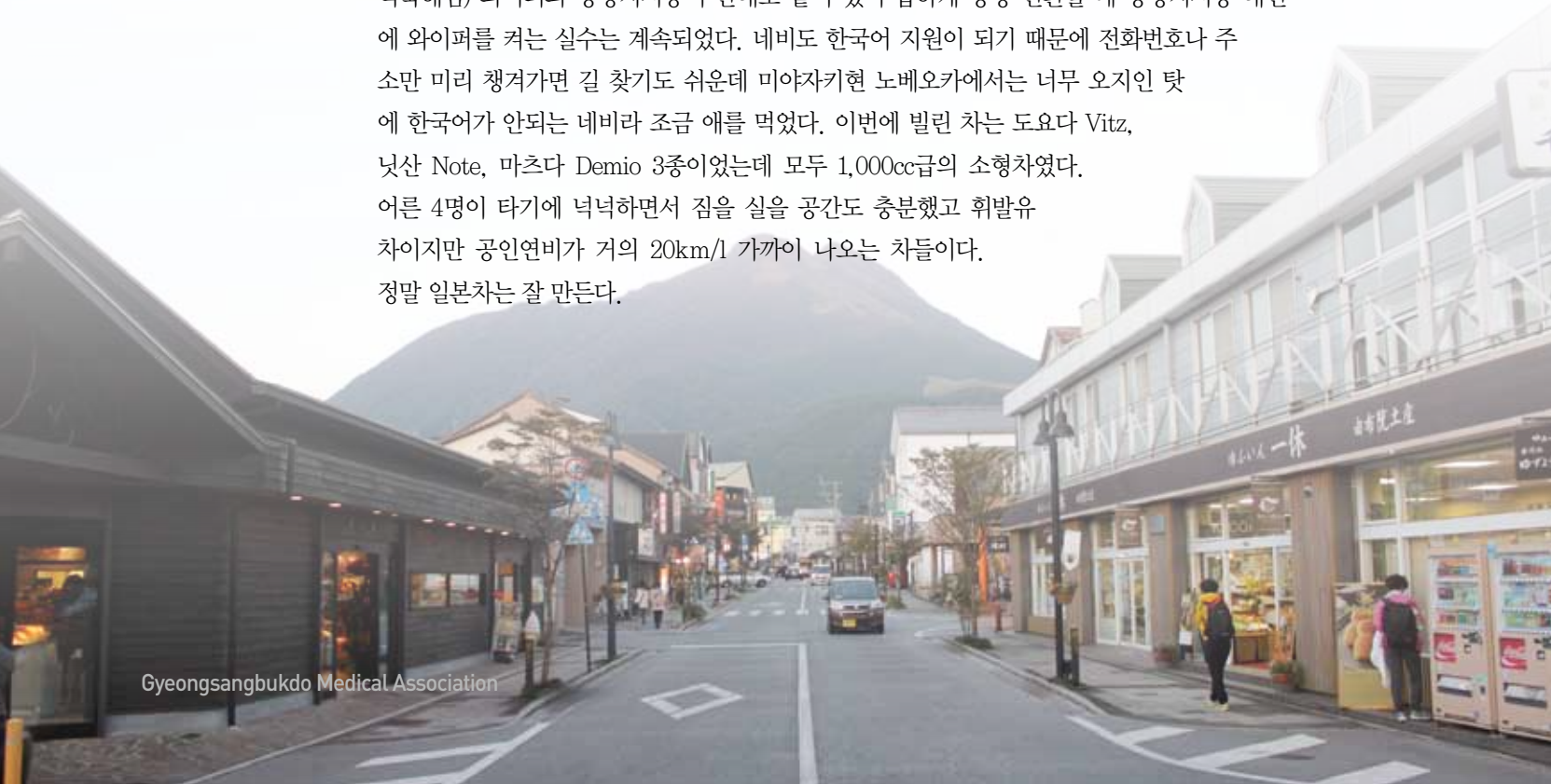
패키지를 가면 너무 빡빡한 일정에 지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좀 여유있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맛집 기행도 하고 싶었다. 장거리는 열차로 이동하고 각 지역에서는 렌터카를 빌려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마음 내키면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하면서... 물론 자유 여행은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고르고 계획을 세우는 재미도 좋다.

특히 이번에는 렌터카 여행이 있어 색다른 경험이 추가되었다. 일본에서의 차 운전은 처음이라 약간은 긴장이 되었지만 금방 익숙해져 별 무리없이 운전



우리가 렌터 했던 차들 (좌부터) Vitz, Note, Demio

전을 하면서 다녔다. 하지만 시골길 한적한 도로의 좁은 길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맞은편 차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이것도 나중에는 익숙해짐) 와이퍼와 방향지시등이 반대로 붙어 있어 급하게 방향 전환할 때 방향지시등 대신에 와이퍼를 켜는 실수는 계속되었다. 네비도 한국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주소만 미리 챙겨가면 길 찾기도 쉬운데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에서는 너무 오지인 탓에 한국어가 안되는 네비라 조금 애를 먹었다. 이번에 빌린 차는 도요다 Vitz, 닛산 Note, 마츠다 Demio 3종이었는데 모두 1,000cc급의 소형차였다. 어른 4명이 타기에 넉넉하면서 짐을 실을 공간도 충분했고 휘발유 차이지만 공인연비가 거의 20km/l 가까이 나오는 차들이다. 정말 일본차는 잘 만든다.





여행 루트는 후쿠오카 하카타를 출발해서 가고시마, 이부스키, 미야자키, 노베오카(타카치호), 유후인을 거쳐 다시 하카타로 돌아오는 1,000킬로미터가 넘는 먼 여정이다. 사실 남큐슈는 접근성이 나빠 우리나라에서 가기는 쉽지가 않다. 여행 상품도 대부분 미야자키를 중심으로 한 상품이 대부분이고 부산에서 가는 비행편이 없어서 남부 지방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먼 곳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2011년 큐슈 신칸센이 완전 개통되어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 편이다.

10월 5일 7시 21분 후쿠오카의 하카타를 출발하는 신칸센사쿠라 403호 탑승으로 우리들의 큐슈 열차여행은 시작되었다. 가고시마중앙역까지 290km를 최고속도 300km/h로 1시간 40분만에 주파한다. 이후 우리는 가고시마와 이부스키를 연결하는 특급 이부스키노타마테마코(이부타마)와 쾌속 나노하나, 가고시마와 미야자키를 연결하는 특급 키리시마, 미야자키에서 노베오카를 거쳐 오이타까지는 특급 니치린, 오이타에서 유후인까지 큐다이선 보통열차, 유후인에서 하카타까지 특급 유후인노모리를 타고 큐슈를 한바퀴 도는 긴 열차여행을 하였다. 레일패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3만엔이 넘는 요금이지만 큐슈레일패스 5일권을 구입하면 16,600엔이면 된다. 일본의 열

차는 신칸센, 특급, 쾌속, 보통 열차로 나뉘는데 열차의 모양이나 실내 장식을 각각의 노선별로 테마에 맞게 특색 있게 꾸며놓았다. 그래서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열차 탑승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열차 매니아들은 전국의 열차를 모두 타보기 위한 여행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은 열차의 정확한 운행시간으로도 유명한데 연착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지하철까지도 도착 시간이 정확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좋았다.

일본 열차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은 각 지역마다 특산물로 만든 에끼벤(역도시락)을 골라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먹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국의 에끼벤을 경험하기 위한 에끼벤 매니아도 있다. 일본의 열차 여행은 그래서 많은 재미를 선사한다.

10월 4일 토요일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6시,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륙하고 30분이 지나자 곧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온다. 정말 가까운 곳이다. 가까워서인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북큐슈는 한국인의 왕래가 많고 다른 지역보다 일본인들과의 거리감이 덜하다. 큐슈는 일본 고대 신화의 주무대이고 특히 타카치호는 건국신화와 관련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일찍 개방된 지역이라 서양



우리가 탔던 열차들 (좌부터) 신칸센 사쿠라, 이부스키노타마테마코, 나노하나, 키리시마, 니치린, 큐다이 보통, 유후인노모리



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 많고 사람들도 개방적인 성향이 강하다. 또 태평양을 접하고 있으면서 위도가 낮은 지역이라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온화하고 여행하기 좋다. 단, 태풍의 길목이라 태풍만 만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행 둘째날 18호 태풍 판폰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태풍 때문에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는 구경하지 못하게 된다. 다행히 큐슈에는 상륙하지 않고 시코쿠를 지나 본토에 상륙해 비는 많지 않고 오후에 바람이 좀 불었지만 다니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 다음날은 태풍이 지난 후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지금까지의 여행과는 다른 재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다양한 열차도 타보고 렌터카로 여유있게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다. 가고시마

의 센간엔, 일본에서 가장 볼만한

협곡이라는 타카치호 협곡, 탁 트인 태평양 바다와 이국적 풍경을 보여주는 미야자키의 해안도로, 이부스키의 검은 모래찜질, 여성 취향의 아기자기한 온천 마을 유후인에서의 온천, 대도시 후쿠오카까지 다양하고 만족스런 여행이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들 역시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카타의 스시와 나카스 강변의 포장마차 촌 야타이의 정종을 곁들인 꼬치구이와 어묵, 가고시마 명물 고구마를 먹여 키웠다는 흑돼지 돈까스, 이부스키의 온타마란돈(溫卵丼), 미야자키 흑우 첼판구이와 치킨 난반, 료칸의 정식 등 모두가 맛있었다. 특히 료칸의 정식 코스 요리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함께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였다.



항상 여행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많은 기다림과 기대,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간간히 만나는 돌발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평소 답답한 진료실에 갇혀 첿바퀴 돌듯이 지내는 나에게서는 커다란 즐거움이었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그마한 도전에 짜릿함을 만끽한 여행이었다.

# 제2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치고



김재왕

친선행사 준비위원장, 부회장  
김재왕내과의원(안동)

9월 20일~21일, 1박 2일간에 걸친 전라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의 친선행사가 안동 일원에서 있었다.

이미 알다시피 영호남의 사이가 정치적으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앞장서서 화합을 하자는 선배님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어져 오는 모임이기에, 실제 만나보면 정나고 재미있어 또 만나고 싶은 모임이기에 29년이란 긴 세월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리라.

한해는 가고 한해는 오는 모임이 7~8년 전부터 '안동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문화관광단지내에 적당한 호텔이 생기고 회장님을 통해 '전북회원들도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리로서는 손님 맞을 부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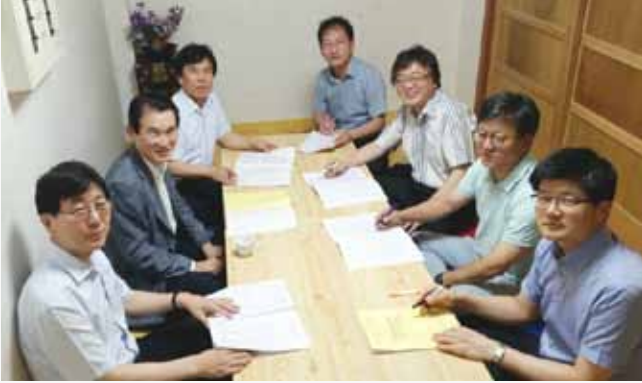
우선 준비위원회 부터 꾸리기로 했다. 안동시의사회의 총무이사과 재무이사는 도의사회 일인만큼 면제기로 하고 안동에 사는 문상용 도의사회 총무이사과 최영환 도의사회 학술이사, 김석곤 안동회장, 그리고 나(도의사회 부회장)로 준비위를 꾸렸다.

안동의 관광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도산서원, 퇴계종택, 군자마을, 국학진흥원과 육사문학관 등이 있는 예안권과,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 병산서원, 이천동석불, 봉정사, 학봉종택 등이 있는 하회권이 있는데, 숙소는 리첼호텔로 하고 관광코스는 하회권을 잡기로 하였다.

첫날의 행사는 공식행사와 만찬, 2부 행사가 되겠는데 공식행사에서는 우리에게겐 최고의 귀한 손님이 오시는 만큼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 시장님과 지역국회의원을 초대해서 같이 손님맞이를 할 요량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흔쾌히 참석해 주시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직접 혹은 비서실을 통해 실무적인 것 까지 의논해 주신 점은 매우 큰힘이 되었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찬은 경북의학제때 연주가 좋았던 울림사중주단, 우리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인격이 좋은 대구시립국악단 이현창 악장의 대금연주 만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구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만찬장에서는 전북 김주형 회장님의 귀뜸으로, 그날은 마침 사지에서 돌아온 전북의사회 방인석 의장님의 생일인지라 의장님의 건강회복을 기념하는 생일 케익을 자르는 깜짝 이벤트를 하였는데 예상치 않았던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방의장님의 건강을 축원하고 아이디어를 내어주신 김주형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부 식후 행사는 언제나 신나는 뒷풀이는 왓자지껄 막걸리 잔치다.

월령교 일원은 야경이 좋아 잠시 산책을 하고 월령교를 건너 50년 헛제사밥집에서 흥청망청 뒷풀이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니 딱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하회탈춤을 볼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하회탈춤 한 꼭지로 잔치 중 깜짝쇼를 하면 멋지겠다 싶었으나 공식행사만으로도 눈코뜰새 없는데 탈춤 추는 누가 식당에 와서 깜짝 쇼를 해 준단 말인가? 더구나 원래 이집은 밥집이지 저녁 늦게 술상을 보는 집이 아니지 않는가!

'김선생이 부탁을 하는데 해야지!' 하고 담박에 허락해 주신 이상호 선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의원을 세번이나 한 김선종 의원의 사모님인 '50년 헛제사밥'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술상을 간청하는 과정에서 김석곤 회장의 사모님의 역할이 컸음을 밝힌다.

그외 준비해 두었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한 행사가 하나 더 있었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내려오긴 했으나 혹시나 술상자리에 관심이 없을 회원과 가족을 위해 부근의 민속공예관과 월령정 객사 등을 둘러보기 위해 인문학에 밝고 이야기꾼인 윤초 김종규 선생(안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안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그 늦은 시간까지 하회탈 공방을 보여주기 위해 하회탈 소목장 대한민국 명장 김완배 선생님께서 공방에 기다리고 계셨다. 결국 모이기만 해도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어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두 분께 양해를 구했다.

김종규 선생께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와 특히 김완배 선생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었다고 인사를 다시 드린다. 두 분 모두 친하다는 핑계로 대단한 실례를 한 셈인데 용서를 빈다.

결국, 11시가 넘어서 자리는 안동의 신시가지인 옥동의 클럽으로 이어져 홀을 모두 차지하고 흥겨운 노래와 어깨동무로 새벽 한시가 되어서야 자리를 파했다. 전북의 전성주 부회장과 엄철 감사, 경북의 이봉구, 한형원, 문상용, 나, 그리고 김장희, 윤태권 선배 등 역전의 용사들은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젓가락 장단으로 노래와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고 결국 내시 반이 되어서야 일어섰다.

특히, 늦게까지 같이 해주신 두 분의 전북회원님과 김장희, 윤태권 선배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날은 관광이다.

마침 전형적인 가을 햇살이 좋아 나서는 느낌부터가 좋았다. 이미 좋은 해설사들을 섭외하고 사전 미팅을 통해 여러 가지 조율을 마친지라 안심이 되었다. 그날의 행사진행은 최영환 이사가 맡았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학술이사답게 진행이 매끄러웠다. 제비원 석불을 보고 봉정사를 둘러보고 하회를 둘러보았다.

봉정사에서 주지 자현스님이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스님은 오랜세월 선방수좌 생활과 철저히 계율을 지키는 좋은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들로서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주선해주신 신현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좋아 걷기에도 좋아 기분이 좋았으나 하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여 좀 아쉬웠다.

참, 공식행사 전에 오전 진료도 접고 한 20명 정도 김주형 회장님을 비롯한 전북회원들이 12시경 안동에 도착했다. 경북 공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도산서원이 있는 예안권을 돌아보았다.





퇴계종택을 돌아볼 때는 종손어른을 알현할 기회를 만들었다. 종손어른을 뵙도록 주선해 주신 국학진흥원 반명목 전 문경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방문시에는 만나기 힘든 안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근필 퇴계 종손어른, 봉정사 자현 주지스님, 인간문화재 이상호 선생, 만나지는 못했으나 대한민국명장 김완배 선생 같은 분이다.

길풍식당에서 마지막 석별의 시간을 가질때도 더 같이 있지 못함이 아쉬웠다.

정능수, 이국희 회장님 부부가 선물한 김완배 선생이 짝은 하회탈을 쓰고 즐거워 하던 김주형, 안혜숙 회장님 부부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간 준비했던 보람이 느껴졌다. 전북의사회에서 안동시의사회에 감사패와 발전기금으로 거금을 내놓았다. 결국 그 따뜻한 돈은 경상북도의사회 봉사기금으로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납되었다. 김 회장님과 전북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환대' 라는 단어가 '경상북도의사회가 전라북도의사회를 맞는 마음'이란 방인석의장님의 조크도 좌중의 분위기를 좋게 하였다.

점심으로 내놓은 식사는 안동의 '헛제사밥'이었다. 제사도 지내지 않고 먹는 '헛'이 아니라 옆동네의 어려운 친구에게 식사한끼 청하기 위해 혹시 친구의 마음을 다칠까 '이보게 우리집에 제사가 있었네' 하고 내놓았다는데서 유쾌한 배려하는 마음이 깃든 한끼의 식사가 헛제사밥이다. 전라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이고 언제나 만나면 즐거울 수 밖에 없다. 먼 길 달려와 틀림없이 불편함이 있었을 터인데 모든 것을 좋게만 이야기해 준 전라북도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준비과정에 위에서 밝힌 준비위원들과 이사님들의 관심과 노고가 많았고 회장님의 각별한 압력(?)이 있었음을 밝힌다. 회장님은 특별한 관심으로 함께 답사까지 하였고, 문상용 총무이사는 진행을 맡았다. 김광인 부의장은 음향과 행사장 점검에 특히 애를 썼으며, 최영환 학술이사는 관광의 진행을 챙겼다. 나는 병원 식구들과 가이드북을 만들었고 행사전반의 준비를 조율했다. 사무처에서도 수고가 많았다. 모두 정성을 쏟는 모습이 좋았다.

준비위원들이 진심을 담아 수고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 서로 친해진 점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

전라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의 영원한 우정과 건승을 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 안동을 다녀오시기



조수영 원장  
조수영소아청소년과의원(전주)

2014년 9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안동에 다녀왔다. 전북과 경북의사회의 친선행사의 하나로 29회째 이어져 온 행사이다. 한해는 전북의사회에서 경북을 방문하고 다음 해에는 경북의사회에서 전북을 방문하여 두 도 의사회의 친선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안동은 처음 가본 도시이다. 하회마을, 유학, 종손, 안동 간고등어, 안동 찹쌀. 이런 단어들로 머릿속에 떠다니던 도시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 떠다니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져 안동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오늘의 안동이 있기까지 왜 안동인들이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 하는지, 왜 제사와 관련된 음식들이 발달했는지, 우리나라의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할 때 왜 안동을 보여주는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여행기간 내내 푸르고 맑은 하늘이 계속되었고 바람은 적당히 시원하고 햇볕은 따사로워 쾌적한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침 8시 30분 전주에서 출발하여 12시경에 도착하였다. 점심식사 장소에 경북의사회 부회장님, 안동시의 사회장님, 총무이사님, 학술이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반갑게 정성껏 맞아주셨다. 점심식사 후 문화해설사와 함께 간 첫 번째 장소는 퇴계 이황 선생의 종택이었다. 선생의 16대 종손 어른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종손 어른은 흰철한 키에 인물도 좋으시고 인품이 차분하고 인자해 보이셨다. 16대 종손 어른께서 집에서 담은 매실차와 함께 종택에 대한 이야기, 현판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셨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새겨들을 이야기였다. 안타깝게도 청력이 소실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니었지만, 의견교환에 어려움은 없었다. 손수 쓰신 퇴계선생 수신 10훈 중 하나를 선물로 주셨다. 종택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맑고 수수하여 가을과 잘 어울렸다. 퇴계 종택은 뒤로 조그만 산이 있고 앞으로 퇴계라고 하는 시내가 있고 그 앞으로 논과 밭이 있다. 선생의 호가 퇴계인 것은 이 시내에서 연유한 것이라 한다. 종택 앞에 퇴계 선생의 시가 조각되어있는 바위가 있었다.



"몸 물리나니 어리석은 분수 편안한데  
학문 퇴보하니 늘그막이 걱정스럽네  
퇴계의 가에 비로소 거쳐 정하고  
시냇물 굽어보며 날로 반성해보네"

학문이 높은데도 학문이 퇴보함을 걱정하셨고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는 삶을 사셨던 퇴계 선생의 작품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도산서원이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천원권 앞면에 퇴계 이황 선생과 매화나무가 뒷면에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인쇄되어있다. 평소에는 천원권 지폐를 유심히 본 적이 없다. 지폐의 뒷면이 도산서원 가는 길이란 것도 처음으로 알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하였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 7년)에 지어진 서원으로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고 1575년 당시 명필가였던 한석봉 선생이 쓰신 도산서원의 편액을 하사받음으로써 사액서원으로서 영남 유학의 총본산이 되었다. 서원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도산서원은 건축물 구성면으로 볼 때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된다.

도산서당은 퇴계 선생이 몸소 거쳐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퇴계선생 사후 건립되어 추증된 사당과 서원이다. 도산서당은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하였다고 전해진다. 늘어나는 학생들로 인해 도산서당의 마루를 이어붙인 모습이 정겹기까지 하다. 서당마루에 앉아보니 시원하고 전망이 좋았다.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도 이때 함께 지어졌다. 농운정사의 설계 역시 퇴계 선생이 하였다고 한다. 기숙사격인 농운정사는 구조적으로는 완벽한 대청을 이루면서도 문이나 창문으로 비대칭적 요소를 보여 더 멋스럽게 느껴졌다. 퇴계 선생의 섬세하면서도 예술적인 면이 보여 놀라웠다. 전교당에는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의 글씨인 도산서원 편액이 걸려있다. 이곳이 강당으로 사용하던 곳이고 뒷편에 자리 잡은 사당 건축물인 상덕사에서 위패를 모셔놓고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례를 지낸다고 한다. 서원 입구 왼쪽에 옥진각이라는 유물전시관이 있었다. 이곳에는 퇴계 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성학십도를 그린 병풍, 수훈 10가지, 책상, 벼루 등도 진열되어 있었다.

도산서원을 뒤로하고 오천군자리로 향했다. 예안면 오천리라는 마을에 조선초기부터 광산김씨 예안파가

500여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수몰 위기에 놓인 문화재급 건물과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만 옮겨지은 마을이 오천군자리다. 군자리라는 말의 유래는 이 마을 출신 학자가 워낙 많아서 "마을에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후조당은 예안파 종택에 딸린 별당으로 현판은 퇴계 선생의 글씨이다. 탁청정은 1541년 김유가 지은 가옥에 딸려있는 정자로 현판글씨는 한석봉의 작품이며 이곳에서 수운잡방이라는 요리책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탁청정 김유(1491-1555년) 선생과 계암 김령(1577-1641년) 선생 두 분이 쓴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요리법에 관해서 저술한 책이다. 일부 향신료의 기록이 있고 고추를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 초반까지 쓰여진 조리책이다. 술 만드는 법, 국수 만드는 법, 식초 만드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 메주 만드는 법, 과자 만드는 법 등이 기록되어있다. 이는 조선전기 당시의 식생활 및 조리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나의 경우 음식 만들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음식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그 집안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화가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가 들어있다고 보기에 음식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집만의 음식 만드는 법이나 음식과 관계된 우리 가족의 에피소드를 기록하여 책으로 내고 싶은 작은 꿈이 하나 있다. 그래서인지 수운잡방이란 책이 무척이나 반갑게 다가왔다. 조선시대 양반집 남정네가 요리책을 쓰다니?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하나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글로 쓰여져 기록으로 남았을 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전북·경북 친선행사장인 리첼호텔로 향했다. 안동은 인구 17만에 시 면적은 서울의 두 배 반이라고 한다. 조용한 소도시인데 경북도청 이전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행사장 역시도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었다. 경북 회원님들이 행사장 입구에 모두 나와 서 있었고 우리는 경북 회원 한분 한분과 인사를 하며 입장하였다. 지난 경·전북 모임에서 서로 친

분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시 만난 반가움에 너무 반가워하였다. 공식행사에서 환영사, 답사, 축사가 있었고 특히 천희두 원장님의 판소리 축사는 분위기에 너무도 어울리는 멋진 모습이었다. 선배 회원님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 보였고 여유 있고 활기차 보였다.

공식행사 이후 달밤에 월영교 밤 나들이가 있었다. 제일 오래된 목조 다리라고 한다. 안동의 헛제사밥과 막걸리를 마시며 안동 탈춤 한마당을 보았다. 회원들의 숨은 솜씨 자랑과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정말 즐거운 자리였다. 경북 예천에 자리잡은 동기를 졸업 후 처음 만나 다른 동기들과 함께 즉석 동기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뒤편이 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날은 경북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제비원과 봉정사, 하회마을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과 범홍사지 칠층전탑과 제비원을 거쳐 봉정사에 도착하였다.

봉정사는 안동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험하지도 않아 잠시 바쁜 도심을 떠나 한적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곳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극락전을 가진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 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이다. 능인 스님이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잡어서 날리니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산문을 개산하고, 봉황이 머물렀다고 하여 봉황새 봉(鳳)자에 머무를 정(停)



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다. 주지 스님께서 봉정사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셨다

국보 제15호인 극락전, 국보 제311호인 대웅전, 보물 제1614호 후불벽화, 보물 제1620호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보물 제448호인 화엄강당등, 봉정사는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국보급 문화재와 보물이 많이 있었다. 탁 트인 넓은 공간이 아닌 앞마당 같은 조금 넓은 정도의 규모였다. 닫힌 공간이지만 답답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었다.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극락암은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었고 작지만 그 오랜 시간을 견뎌왔음에 숙연해졌다.

영산암의 출입문인 우화루 밑을 지나 암자의 안마당에 닿으면 고건축의 미학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마당의 멋스러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이다.

마당의 가장자리에 자그마한 동산을 만들어 기암괴석을 옮겨놓고 그 위에 멋스럽게 휘어진 고목과 꽃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 건물에는 툇마루와 누마루 등이 설치되어 서로 이어져 있다. 영산암 앞마당에서 해질녘을 상상해보면 이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번 여행에서 참으로 좋았던 장소이다.

봉정사의 감동을 뒤로하고 향한 곳은 하회마을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가 600여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瓦家:기와집)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대 유학

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태극형/연화부수형/행주형에 일컬어지며,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였다. 수령이 600여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중심부에 해당한다. 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집들이 강을 향하고 있다.

풍산류씨 대종택인 양진당에서 바라보는 문필봉과 뒤로 보이는 부용대는 자연을 내 집의 정원처럼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천혜의 정원이었다. 내 집 마당에 만든 정원이 아니라 집 주변의 산, 강, 절벽마저도 함께 즐길 줄 아는 선조들의 멋과 지혜를 볼 수 있었다.

충효당은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으로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방문시 들렀던 곳이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강조하여 당호를 충효당이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 뒤편 소나무숲과 부용대 앞 나루터까지 걸어서 구경하였다. 병산서원, 옥연정사, 겸암정사는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다. 하회마을에서 출중한 인물들이 나고 대대로 번성하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여서라기보다는 건장한 사고방식과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풍 때문인 것 같다.

관광 후 점심은 안동의 간고등어, 안동찜닭, 안동 헛제사밥, 안동 식혜를 맛보았다.

제29회 경·전북 모임의 환송 행사가 있었고 처음 환영 모임처럼 환송 때에도 회원 한분 한분과 인사하며 헤어졌다. 훨씬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헤어짐이 못내 아쉬웠다. 이번 여행에서 참으로 정성스러운 대접을 경험하게 되어 기뻐다. 이 자리를 빌려 경북 회원님들께, 특히 안동시 회원님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린다. 내년 전북 방문을 기약하며 버스에 올랐다. 경북 회원님들이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어 배웅해주셨다. 1박 2일의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다. 안동이란 도시가 내게 참으로 큰 울림을 주었다.

"내 아이들과 내 자손에게 남겨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다.



# 소아 섭취행동 장애의 임상적 접근



조승만 교수  
동국대학교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경주)

요즈음은 과거에 비해 먹을거리가 풍족하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향상되어 어린이들의 영양섭취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해서 소아 비만환자의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섭취 불량으로 인한 성장 부진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도 진료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섭취문제는 정상발달 아동의 25~40%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소아기 문제행동으로, 이중 3~10%에서 심각한 섭취문제로 발전되어 성장, 발달, 인지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섭취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병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기질적인 원인과 행동 및 환경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 된다.

섭취 행동장애의 유형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배고픈 상태와 배부른 상태의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영아 산통이며 생후 수개월 안에 시작되며, 먹으면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너무 졸려하거나 심하게 보챈다. 연령에 맞는 체중증가를 보이지 않거나 체중 감소를 보일 수 있으나 기질적인 문제는 찾을 수 없다.

치료로는 영아 마사지, 부드럽게 얼러주기,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충분한 간격의 수유로 충분한 수면 주기를 만들어주기 등이 있으며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보호자와 아이와의 부적절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식사 장애

### - 학대 및 방임, 정서적 박탈

감염이나 다른 급성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에 우연히 의사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성장 지연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자가 섭취장애 및 성장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자와 상호관계(사회적 미소, 눈맞추기 등)가 부족한 경우가 흔하다. 환아는 무표정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드물지만 엄마 자신도 관계 형성장애나 정서 박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필요시 신경정신과와 협진으로 가족치료를 하기도 한다.

### 3. 영아 거식증

주로 손가락으로 먹거나 혼자 먹기 시작하는 시기 즉 생후 6개월에서 만 3세 사이에 잘 발생하며, 음식이나 식사에 별 관심이 없고 놀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구강 인두나 다른 소화기관의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기질적인 질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사 거부로 인해 체중 증가 지연을 보이며, 부모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사 거부 기간이 길어지면 체중증가 지연과 영양결핍을 보이게 된다. 머리둘레 및 인지력은 대개 정상이다. 어릴 때 식사거부 증상이 개선되지 못한 경우 초등학교 연령 때 까지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체구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이들의 신체 비율은 적절하며 단지 좀 작고 마른편에 속한다.

원인으로는 일란성 쌍둥이에서 유사한 식사장애가 관찰되고 부모나 가까운 친척 중 비슷한 식사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식사중 산만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장난감 또는 TV 로 아이를 산만하게 한 상태에서 음식을 아이의 입에 밀어 넣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여 배고픔에 대한 내부 조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치료로는 아이가 생리적인 욕구인 배고픔과 포만감에 의해 식사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식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칙적인 식사시간표를 만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산만하지 않는 식사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4. 음식 혐오증 - 편식

아이가 한 달 이상 특정 음식 또는 특정한 냄새, 온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다. 혐오하는 음식에 대한 반응은 찡그림, 뺨어냄, 구역/구토 등이다. 반면 좋아하는 음식이 제공되면 잘 먹으며 일반적으로 성장지연은 보이지 않고 드물게는 과체중일 수 있다. 보통 6~10개월 사이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같은 음식에 대해서 어느 때는 먹지만 어느 때는 거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음식을 먹이기 위해 협상, 위협 또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포심이 커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수는 더 적어지게 된다.

치료로는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는(구토, 구역질, 뺨기 등) 음식은 주지 않도록 하며, 약간의 찌뿌림 등 약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는 그 음식을 다른 시간대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소량씩 제공해주도록 한다. 또한 식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도록 한다.

### 5. 외상 후 식사 장애

갑작스럽게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 정도가 심하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지속적인 음식거부는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연상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발현된다. 질병으로는 안먹으려 하지만 손가락으로 주면 먹는다면 고형식은 거부하지만 액체나 반고형식은 먹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치료로는 고형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유동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서서히 농도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식사시간에 부드러운 음악이나 TV를 키기도 한다(식사중 산만함을 이용하는 유일한 식사장애이다). 먹는량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고 식사끝에는 영양 보충식을 사용한다. 심한 음식 거부의 경우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아이에게서 배고픔을 이끌어 내는 것이 치료의 성공여부에 중요하다.

## 식사 가이드라인 | The Feeding Guidelines

### 1.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일정한 식사장소를 정한다.

- 식사와 간식을 3~4시간 간격으로 배치한다.
- 정해진 식사 및 간식시간 사이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한다.

### 2.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여, 아기가 그릇을 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놓이게 한다.

- 배부름을 느끼고 손가락을 놓도록, 자연스럽게 양을 늘린다.

### 3.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때 까지 식탁에 앉아 있도록 한다.

### 4. 식사 시간은 20~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아이가 아무리 적은 양을 먹었더라도 식사시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
- 지나치게 길어진 식사시간은 다음 식사에 영향을 미친다.

### 5. 먹은 양의 많고 적음에 대해 칭찬이나 꾸중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아이가 혼자 먹었다는 것, 그 기술 습득 자체를 축하해 주고, 먹은 양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킨다. 먹 는 행위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요구에 따라 조절되는 행위이다.

### 6. 식사 중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장난감을 치우고, TV를 끄도록 한다.

- 산만하게 먹을 때, 아이는 신체 내부의 욕구에 집중할 수 없다.

### 7. 음식을 보상이나 부모의 애정표현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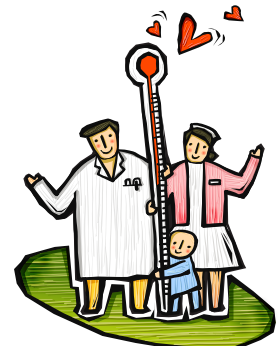
### 8. 식사를 방해할 정도의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식사에 집중하도록 격려한다.

- 따로 재밌게 부모와 함께 노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든다.

- 결론 :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섭취 장애 환자의 치료는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고 간단한 식사 가이드라인을 부모에게 교육하고 상담을 진행 한다면 아이들이 영양학적, 정서적 위기에 빠지는 것 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 필요한 경우 섭취 행동 장애를 선별하여 올바른 식사습관을 유도 하면 연령에 적절한 섭취 행동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것으로 여겨진다.

### ■ 참고 문헌

- 1) 정경미, 아동기 섭식과 관련된 문제행동의 치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춘계 심포지엄 2004;34-40
- 2) 김정은, 진료실 수준에서 잘 먹지 않는 아이에 대한 임상적 접근, 대한소아 소화기영양학회 춘계 심포지엄 2010;68-79
- 3) Bentovim A, The clinical approach to feeding disorders of childhood, J Psychosomatic Research 1970;14:267-76.



# 대한의사협회 행복도서관

우리협회는 (주)북코스모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들의 정서적 소양 양양과 동시에 병,의원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행복도서관'을 오픈하였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원들만을 위한 특별혜택

<b>정가</b> 연 9만원(월간지 포함)	▶▶▶	<b>회원특가</b> 연 1만원(월간지 제외)
----------------------------	-----	------------------------------

## 제공서비스

구 분	분 야
도서요약 eBook	-일반 분야 (리더십, 자기개발, 트렌드, 재테크, 마케팅, 경영전략, 금융경제, 기술, 고객서비스, 협상/대화법, 창업, 노후대비, 문학, 인문/철학, 취미/여행/건강, 자녀교육, 청소년/어린이 등) -특별분야 (삼성경제연구소 에세이, 수능논술대비, 서울대권장도서, 워튼스쿨 총서시리즈 등)
오디오북	경제경영, 인문교양, 문학 등
미발간 해외 최신도서 정보	영미도서, 유럽도서, 일본도서, 중국도서, 아동도서, 기타도서 등
북세미나 동영상	자기개발, 리더십, 마케팅 등
저자와의 만남 동영상	자기개발, 리더십, 마케팅 등
명저자 오디오 강연 mp3	경제경영,인문교양,어린이,문학
초등학생 독서교실	1 / 2 / 3 / 4 / 5 / 6 학년용
어린이 애니메이션 그림책	창작동화, 학습동화, 유아동화, 영어동화
어학강좌	영어 / 일어 / 중국어 회화 과정
도서칼럼	서평칼럼, 경영사례, 건강 등
동기 부여 이벤트	얼리버드 캠페인 등

## 주목할만한 서비스

### 얼리버드 캠페인

- 출간 전 또는 출간 직후 최신 도서나 기 출간 도서들 중 선정된 우수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 신청도서 정가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택배비(권당 3,500원)만 지불하고 신청도서를 무료 증정하는 캠페인

## 회원 주요 활용 방안

- ▶ 회원 및 가족 개별 콘텐츠 이용(도서, 오디오북, 어학강좌 등)
- ▶ 도서구입
- ▶ 도서요약본(한글, 워드, PDF 제공) 열람 및 병원 비치(환자 대기실)
- ▶ 어린이 도서관(어린이 애니메이션 및 영어동화 그림책 등)
  - 소아과 및 내과 등 환자대기실에 재생 가능
- ▶ 모바일 제공 콘텐츠
  - 이달의 신간도서, 도서요약본, 얼리버드 캠페인, 오디오북, 1분 독서영상, 독서퀴즈, 독서칼럼

## 문의사항

- ▶ 대한의사협회 행복도서관(주)북코스모스
  - 가입문의 및 상담(T : 02-335-2222, 내선 : 602번, F : 02-3142-5315)
- ▶ 대한의사협회 사무국
  - 회원지원국 사업팀 / 최길만 팀장(T : 02-6350-6555), 김대욱 주임(T : 02-6350-6556)

“최초의 발을 딛다!”  
**Statin**을 포함한 ARB



- One Pill, Statin을 포함한 ARB · 3상 임상상을 통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 Powerful Irbesartan, Proven Atorvastatin(CV risk management 1차 치료제)

■ 성분 : 150/1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10mg), 150/2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20mg) ■ 용법용량 :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원부문서 참조. ■ 효능효과 :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자의 신질환 치료, 심근경색증, 외출증, 혈관 재생술 및 만성 안정형 협심증 등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제품문의 : 080-916-9000(소비자상담실)

